건강가족기본법 시행에 즈음하여

허 봉 열
건강가정실천운동본부 총재

2005년 1월 1일부터 건강가정기본법이 발효되었다.

그동안 다소의 논란이 있었지만 정부에서도 가정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공적인 개입을 실효화하기로 한 것은 사회발전의 큰 진전이라고 생각된다.

가족제도는 원시수렵사회의 군서가족에서 부터, 농경시대의 대가족, 산업화시대의 핵가족, 그리고 정보화시대(후기산업사회)의 다양한 가족의 출현 등, 사회경제적인 변화에 따라서 가족은 끊임없이 적응과 변화를 계속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오랜 농경사회에서 지난 40여 년간의 급격한 산업화과정을 거치면서, 가족제도는 대가족제도에서 핵가족제도로 바뀌었으며, 2002년 현재 85%의 가족이 핵가족이다.

그러나 정보화 사회로 급속히 진입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핵가족의 해체의 가속화가 우려되고 있다. 그 결과 한부모 가족, 무자녀가족, 독신가족, 동거가족, 재혼가족, 노인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출현이 예상되고 있다.

이미 선진각국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가족형태가 상당히 보편화되어 가고 있지만, 아직 사회복지 기반이 매우 취약한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급격한 변화를 수용하기에는 국가적인 큰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전망된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급속한 고령화추세와, 세계적인 저출산율 등으로 향후 복지의 기반이 크게 흔들릴 것이 우려되는 시점에서 이러한 급속한 변화는 깊이 성찰해야 할 문제점이다.

세계 각국에서는 가족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이미 UN에서는 지구촌의 평화와 행복을 위하여 가족이 중요하다는 뜻에서 매년 5월 15일을 "세계가정의 날"로 제정하였다. 많은 선진국에서도 가족가치를 중요한 정책과제로 내걸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금년부터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하여 5월달을 "가정의 달", 5월 1일을 "가정의 날"로 명시한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 생각된다.

아직 많은 국가에서는 핵가족의 건강성의 유지와 보호에 정책의 최우선적인 초점을 맞추고, 앞으로 다양한 가족의 출현에 대한 지원과 지지 정책을 펼치고 있다.

가족은 유전물질을 나누고 공유하는 가장 혈연적이고, 가장 생물학적인 사회조직이다. 특히 가족의 자녀출산기능, 정서화기능 그리고 자녀의 사회화 기능 등은 어느 인위적인 사회조직으로도 책임감있게 이들 기능을 수행하기 불가능하다.

가족은 하나의 소중한 생명체이다.

따뜻한 사랑으로 체온을 유지하고, 끊임없는 대화로 신경계를 유지하고, 구성원 모두를 격려하는 관용으로 성장을 유지하고, 적절하고 건강한 규범을 통하여 통제를 유지하고, 외적인 변화를 헤쳐나갈 유연성을 통해 적응력을 유지하는, 하나의 역동적인 생명체이다.

가족은 자신의 현재요, 자신의 과거요, 자신의 미래이다.

가족의 건강성은 문제가 생기기 전에 위험요인을 찾아서 가족의 건강성을 증진하는 일차예방이 더욱 효율적이다.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는 이차예방의 적용에 신속해야 한다. 그리고 이미 가족이 해체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족에 대해서는 국가사회가 개입하여 빨리 적절한 기능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삼차 예방이 필요하리라고 생각된다.

> 가정은 사회의 생명력이고 활력이다.
> 가정은 사회의 생산력의 기본이다.
> 이번 건강가정기본법의 출범과 더불어,
> 우리나라가 좀 더 활기차고 생명력있는
> 밝고 복된 사회가되기를 소망한다.

이번 건강가족기본법은 매우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가족복지의 기틀을 구체화하고 있다. 우리의 실정에 비추어 한꺼번에 모든 것을 얻으려 하다가 좌절하지 말고, 하나하나 최선을 다하여 확실히 실천해 나가는 가운데, 하나의 Critical mass를 형성하고, 값진 열매가 맺어진다는 귀중한 교훈을 기억하고, 슬기롭게 대처해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가정은 사회의 생명력이고 활력이다.
가정은 사회의 생산력의 기본이다.

이번 건강가정기본법의 출범과 더불어, 우리나라가 좀 더 활기차고 생명력있는 밝고 복된 사회가 되기를 소망한다.